그린산업

바이든 사퇴와 그린산업

그린산업 포인트

바이든 사퇴로 그린산업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예상됨.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서, 단기 업황과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Green Industry 한병화_ 02)368-6171_ bhh1026@eugenefn.com

-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린산업을 대하는 자세는 정반대
- 바이든 사퇴로 그린산업 투자 심리 최악에서 반등 예상되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은 아님
-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낙점되는 8.19~22일 전당대회까지는 그린산업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지만
- 유력한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가 높지 않아 여전히 트럼프 당선이 유력한 것이 현재 상황
- 민주당의 재집권은 1) 기존 지지층의 재결집 2) 트럼프 혐오층의 투표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현 시점에서 그린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는 철저히 단기 업황과 실적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
-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본 그린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중 단기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업체들은 저점 매수 기회 찾는 것 권고
- 전기차/배터리 관련주들은 업황과 실적이 예상 대비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격 매수 바람직 하지 않아
- 배터리 대표주들인 양극재 업체들의 수출 물량은 미국과 유럽 시장 업황의 선행지표인데, 상반기 누적 물량 전년비 18% 감소
-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효과로 한국 양극재 수출 물량 큰 폭 증가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반등 시그널 없어

도표 1.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그린산업 영향**

	민주당 재집권	공화당 탈환
재생에너지	IRA 에 따른 성장 가속	속도 늦어지나 성장 유지
전기차	**IRA 에 따른 성장 가속**	**연비규제 대폭 축소로 전기차 출시 늦어질 것**
수소	IRA 에 따른 성장 가속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탠스 동일
석유/천연가스	신규 프로젝트 위축	신규 프로젝트 활성화로 공급 증가
석탄	광구와 발전 사업 축소	발전 사업 축소 유지
주요 정책	IRA/인프라부양법	공화당 정강정책 20 / 아젠다 47
주요 정책 내용	그린산업 전체에 생산 세액공제	IRA 의 전체 구조는 유지하나, 자국내 생산 요건 강제
	투자세액공제, 공장 건설에 정부 보증대출	전기차 부문 구매 보조금 요건 까다롭게 변경
	밸류체인 업체들에게 생산량 비례 세액공제	천연가스/석유 광구 프로젝트 개발 허가 확대
	그린산업 전체에 대규모 R&D 자금 지원	그린산업 R&D 자금 지원 대폭 축소

자료: 유진투자증권

바이든 사퇴로 그린산업 관련주 투자심리 개선되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워

바이든의 사퇴로 그린산업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한 패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선후보가 공식 지명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8.19~12)까지는 낙폭과대한 그린산업 관련주들에 대해 트레이딩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비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린산업 펀더멘탈이 변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기존 지지층과 트럼프 혐오층에 대한 투표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대선의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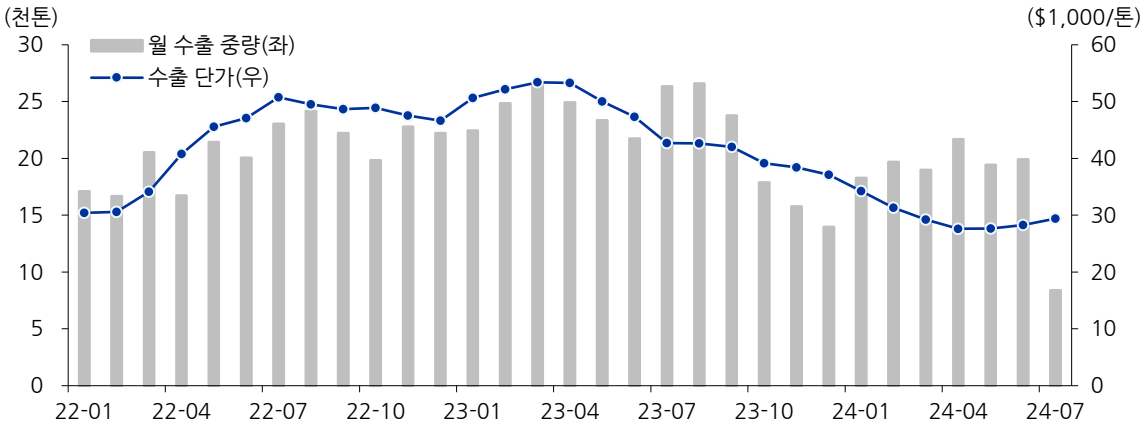
그린산업 투자는 단기 업황과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바이든 사퇴로 그린산업 관련주 전반에 저가 매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여전히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적과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공포로 급락한 종목들은 단기 수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업황과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업체들 중 단기 실적 모멘텀이 생기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를 노리고, 업황이 좋지 못한 전기차/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추격매수 자제를 권고한다.

상반기 미국, 유럽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뚜렷하고, 선행지표인 한국 양극재 수출도 부진

미국의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71.8만대로 전년 66.4만대 대비 8% 증가했다. 유럽의 판매는 144.1 만대로 전년 141.9 만대 대비 2% 성장에 그쳤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지 않았고,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은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5%, 21% 증가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의 수출 물량은 전기차 시황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올 상반기 한국 양극재 수출 물량은 11.8 만톤으로 전년 14.4 만톤 대비 18% 감소했다. 하반기에 신규 모델 출시효과로 큰 폭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7 월 20 일까지도 역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업체들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2. **한국 양극재 수출 부진 지속**



자료: TRASS, 유진투자증권
주) 7 월은 7 월 20 일까지의 잠정치

도표 3.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2,007	2,622	3,440	4,456	5,578	6,746	7,973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770	2,331	3,079	4,015	5,039	6,087	7,169
YoY(%)	51.2	56.3	23.2	31.7	32.1	30.4	25.5	20.8	17.8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10.7	13.7	17.6	22.6	27.8	32.9	38.0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0,567	12,479	14,559	16,736	18,947	20,845	22,508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039	11,816	13,724	15,679	17,609	19,127	20,272
YoY(%)	83.7	36.6	24.0	17.7	16.2	14.2	12.3	8.6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2.4	37.0	41.7	46.3	50.5	53.2	54.8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810	975	1,159	1,367	1,607	1,908	2,294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308	3,722	4,194	4,735	5,357	6,173	7,092
YoY(%)	15.1	18.1	7.6	12.5	12.7	12.9	13.1	15.2	14.9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4.3	26.8	29.6	32.8	36.4	41.1	46.3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505	19,622	23,190	27,153	31,354	35,502	39,606
YoY(%)	55.0	35.7	20.6	18.9	18.2	17.1	15.5	13.2	11.6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4	21.2	24.3	27.9	31.6	35.1	38.4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